절세위인들과 총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속에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속에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있으며 교수, 박사,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배우들도 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값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며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75(1986)년 11월 조국에서 진행된 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된 7명의 재일동포대의원들가운데는 해외에서 오래동안 문학창작활동을 해온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위원장이였던 허남기선생도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한달 앞둔 그해 10월중순 어느날 대의원선거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후보자명단에 총련문예동위원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총련에서 그가 오래동안 앓고있는 병에 로쇠까지 겹쳐 몸져누워있는것을 고려하여 대의원후보자명단에 넣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총련에서 그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앓고있기때문에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대의원후보자명단에 넣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는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총련간부들중의 한사람이라고, 지난해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를 부르시여 조국에서 병치료까지 하여주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허남기선생이 처음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께서는 동무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집필사업에서 이룩한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도 해주시고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고는 여러 차례 조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몸을 추세우도록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그가 병치료로 조국에 올 때 안해와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오도록 해주시고 경치좋은 조용한 휴양소에 숙소까지 잡아주시였을뿐 아니라 전문의사와 간호원, 보장성원들까지 따로 붙여주시여 마음껏 병치료를 받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날의 뜨거운 사랑을 되새겨보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조국의 작가들의 이름을 외우시며 그들도 10여년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기만 하였지만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그대로 두고 보살펴주었다고 하시면서 허남기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고있다고 해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계속 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알려 그의 이름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명단에서 빠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총련의 한 일군을 변함없이 믿고 내세워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끌과 깊이를 알수 없는 고결한 의리에 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허남기선생은 또다시 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게 되였던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 박충우, 한동성, 강추련을 비롯한 총련일군들도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믿어주시며 영원히 변치 않을 동지적사랑으로 안아주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오늘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총련의 부흥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 한몸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지난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깊이 연구하며 실천에 적극 구현하기 위한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연구회조직과 관련한 모임이 얼마전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성원들과 조선대학교와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조선신보사 등의 관계부문 일군들과 법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담보해주는 가장 우월한 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회 조직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진길상참사가 연구회의 조직목적과 그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였다.

그는 연구회의 조직목적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조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자는데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총련의 권리부문사업에서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해나가기 위한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리태일부교수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경위와 그 의의, 특징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고 그 서문에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원호에 관한 내용이 명기된 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은 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해외동포정책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구현으로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차별정책을 반대배격하고 재일동포들을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라고 하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며 동포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앞으로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며 래년 2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 1돐을 맞으며 학습회를 개최하는 문제 등이 토의 결정되였다.

본사기자

애국애족의 넋은 새세대들에게도

❖ 앞선 단위의 경험을 본받아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교또부본부 일군들은 어느날 《조선신보》를 읽던중 한 기사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기사에는 동포어린이들의 민족성을 키워주는 사업과 학생인입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의 사업경험이 소개되여있었다.

교또부본부에서는 즉시 가나가와현본부와 련계하여 그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여 이루어진것이 얼마전 총련 교또조선초급학교와 교또조선제2초급학교에서 진행된 학령전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였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머지않아 민족교육의 대문에 들어서게 될 어린이들을 위해 즐거운 노래춤무대를 펼치였다.

동심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놀이들이 진행되고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흥성이는 마당에서 어린 참관자들은 시종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화목한 정이 오가고 활기에 넘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민족교육의 현실을 다소나마 체험할수 있었다.

부모들의 감동과 기쁨도 컸다. 많은 동포들이 자기 자식이 꼭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앞선 단위의 경험을 따라배워 진행한 행사는 커다란 실효를 거두었다.

❖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지성

얼마전 총련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에서 성대한 운동회가 진행되였다.

공화국기를 높이 추켜든 소년단위원장을 선두로 중급부, 초급부학생들과 유치반원아들이 행진하는 모습은 참으로 씩씩하였다.

학생전원이 출연한 집단체조는 이역의 칼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애국애족의 넋을 간직한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자라나려는 새세대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재미나는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였다. 학생들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여 치렬한 분위기속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응원소리로 운동장은 떠나갈듯하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직원들의 얼굴에는 보람의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이번 운동회를 준비하는데서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컸다.

애국의 역군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학교의 자랑찬 현실을 과시한 운동회는 동포사회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종합문화공연
《종달새》중에서 (2022년 9월)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련북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인 목사 (3)

주체70(1981)년 7월 3일 나라일에 그토록 다망하신 속에서도 김성락선생의 소원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현관문밖까지 나오시여 선생에게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따뜻이 포옹해주시였다.

이어 김성락선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응접실에서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선생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찾아 먼길을 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선생의 조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애국지사! 얼마나 고귀한 부름인가.

그이의 과분한 평가에 김성락선생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김성락선생과 오랜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시였다.

시종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친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김성락선생은 자기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사대의식이 밑뿌리채 뒤흔들리는것을 느끼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이 나라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저들의 세계지배정책실현의 디딤돌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숭미사대에 물젖어 한생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머리를 때렸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이분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심을 확신하게 되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여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성락선생을 오찬회장으로 이끄시고 한 종교인의 신앙심에 대해서까지 헤아려보시며 식전기도를 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온갖 극진한 환대를 받은 선생은 이번에 주석님을 만나뵙고보니 힘이 생긴다고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한몸바칠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인품과 넓은 포용력, 사리정연한 말씀앞에서 나름대로 일생동안 굳혀온 김성락선생의 반공자세도, 오해의 감정도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버리고말았던것이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참다운 애국의 길에서 적은 힘이나마 여생을 바칠 결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선생의 정신세계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평양을 떠나던 날 일체 보도를 내지 않겠다던 당초의 립장을 철회하고 스스로 출발성명을 공식 발표하였다.

단 한번 공화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선생은 반공에서 련공에로의 사상전환, 인생전환을 결심한것이다.

그 나날 최덕신선생과 김성락회장과의 감격적인 상봉도 마련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래동안 공화국과 담을 쌓고있던 아메리카주와 서유럽의 교포계에서는 련북합작, 련공단합의 열풍이 거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해마다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고 동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동경은 전례없이 높아갔다.

반공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보수정객들도, 한생을 예수의 교리만 절대화하던 종교인들도 《북을 락원으로 꽃피운 위대한 주체사상이 공산주의라면 나도 이제부터 공산주의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련공단합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였다.

이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에 의해 반공조류는 걷잡을수 없이 밀려나고 민족대단결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큰 대하를 이루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7)

《대흥》호를 강제검색하려나가 당한 수치와 참패

1992년 2월, 강재를 싣고 남포항을 떠나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를 향해 항해하고있던 공화국의 화물선 《대흥》호가 페르샤만을 가까이하고있을 때 느닷없이 미국이 나서서 생트집을 걸어왔다. 《대흥》호가 미싸일과 그 생산설비들을 싣고 간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배를 억류하여 검색하겠다는것이였다.

미국대통령, 미중앙정보국장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이 나서서 북조선이 중근동지역에 미싸일을 전개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떠벌이였다. 미국방장관이라는자는 《미해군은 명령만 내리면 〈스쿠드-C〉미싸일을 싣고 이란이나 수리아로 가는것으로 믿어지는 북조선의 화물선을 맞받아나갈 준비가 되여있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화물선이 통과하게 될 해역에 수십척의 군함과 비행기를 출동시켜 정세를 긴장시켰다.

예정대로 항해를 계속할것인가 아니면 항해를 포기하고 되돌아서는가 하는 첨예한 상태가 조성되였다.

당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흥》호를 강제검색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은 자주적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날강도적행위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그 배가 강재를 실었든 미싸일을 실었든 미국이 상관할바가 아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된 대이라크금수조치리행과 국제미싸일통제기술협약을 결고 《대흥》호를 검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고 파렴치한짓이다, 우리 배는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과 수리아, 적도기네 등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가고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국제미싸일통제기술협약의 성원국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날강도행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세계의 면전에서 당당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해야 할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는것과 같은 일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목적한 항구에 입항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대흥》호검색문제를 놓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벌어지고있는 이번 대결은 배에 대한 검색을 받는가 안받는가, 미싸일을 실었는가 안실었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인것이 아니라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에 관한 정치적문제, 국제적성격을 띤 첨예한 싸움이라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의 도발을 여지없이 분쇄해버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적들의 비행기와 함선들이 설치는 공해상에서 전파를 타고 날아온 조국의 지시를 받아안은 《대흥》호의 일군들과 선원들은 맞받아 싸우면 이긴다는 신심에 넘쳐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웨치였다.

미국은 이란의 반다르아마스항으로 가는 인디아양상의 항로에 4척의 군함을, 페르샤만으로 들어가는 호르므즈해협에는 22척으로 편성된 함대를 전개해놓고 결정적인 검색태세를 취하는 한편 선체 150m상공에까지 비행기를 저공비행시키면서 배의 전진방향에 폭탄처럼 보이는 검은 물체들을 마구 투하하며 위협해나섰다.

그러나 《대흥》호의 선원들은 목숨바쳐 싸워서라도 배의 항행을 보장하며 나아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킬 비상한 각오로 항해를 멈추지 않았다. 람홍색공화국기는 바다바람에 붉은 기폭마냥 힘차게 나붓기고 《대흥》호는 단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목적한 항로를 따라 거침없이 전진했다.

당장 무슨 일을 칠듯이 오만하게 설쳐대던 도전자들은 정작 《대흥》호가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자 질겁하여 꼬리를 사리고말았다.

1척의 우리 나라 비무장무역선이 수십척의 무장함선과 비행대를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났던것이다.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서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공화국의 단호한 대응에 미국은 또다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말았다.

본사기자 박 철 남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거짓말

최근 남조선의 《민플러스》가 유엔총회에서 한 윤석열역도의 연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윤석열역도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연설에서 유엔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을 파견하여 남조선의 《자유를 수호》하였다고 떠든데 대해 유엔은 지난 조선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지 않은것은 물론 《유엔군》을 창설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열이 언급한 《유엔군》은 단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만든 련합군일뿐이다.

일부 사람들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조선전쟁직후 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유엔안보리) 결의(1950년 7월 7일)》를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유엔의 기발을 도용한데 지나지 않는다.

실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군》을 창설할 권한이 없고 유엔총회에 그 권한이 있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조선반도에 파견할 《유엔군》창설은 결정된바 없다. 오히려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의결하였다.

미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가 가결되자 당시 미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공언하였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이 유엔총회의 결정을 거부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1994년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의 산하조직으로서 통합군사령부를 설립한적이 없으며 다만 미국의 주도하에 배치되여있다.》라고 하였고 1998년 유엔사무총장(당시) 역시 《유엔군》에 대해 《나의 전임자들 누구도 유엔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어떤 국가에 어떤 권한도 위임한적이 없다.》라고 밝히였다. 2004년과 2006년 유엔사무총장의 대변인(당시)은 《〈유엔군사령부〉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이다.》라고 확인하였다.

당시 미국 유엔대표부 부대사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2018년 9월 27일) 공식석상에서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활동이나 조직이 아니고 유엔의 명령과 통제아래에 있는것도 아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것도 아니며 유엔의 예산을 통해 자금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사무국사이에는 아무런 보고선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선전쟁당시 유엔은 《유엔군》을 창설하지도 파견하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는가. 몰랐다면 무능한것이고 알았다면 거짓말한것이다.

윤석열이 혼자 연설문을 쓰지 않았을것만은 명백하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외교부 관계자들이 몰랐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왜 뻔한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도 유엔과 관련한 사항을 부디 유엔총회에서 말이다.

윤석열의 《유엔군》언급에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것이 분명하다.

남조선미국일본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미국에 《유엔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2003년 이라크침공당시 미군주도의 련합군정도로 위상이 전락되면 일본 《자위대》와 남조선군을 《유엔군사령부》에 편입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더구나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다.

결국 남조선미국일본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에게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할 명분을 제공한것이 바로 윤석열이 유엔총회에서 거짓말을 한 리유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